

Handling Conflict that Leads to Peace

평화로 가기위해 겪어야 하는 갈등

아무런 갈등이 없는 지구형제회나 혹은 단일 형제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것은 잘 되어가고 모두가 훌륭하게 함께 가지요. 의견차이도 없고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모든 모임에는 빛으로 가득차고, 장미는 모든 사람의 목을 감싸는 똑같은 아름다운 타우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동조 안에서 신성한 기도를 바치며, 아무도 다른사람 보다 더 크거나 빠르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성무일과서를 사용하여 같은 페이지에 있으며 모든 리본이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개회 성가는 훌륭하게 부릅니다- 모든 구절은 완벽한 피치로 부릅니다. 물론신전 합창단 처럼 들리면 누구에게 음악반주가 필요합니까? 귀하의 양성은 중요하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놀라운 회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의회의 모든 구성원은 양성에 있어서나 공정한 분배 그리고 연례 총회에 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모두 그렇습니다.

말도 안됩니다! 완전히 들어본적이 없지요. 만약 완전한 형제회를 들어보셨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 작은 상상속의 형제회나 지구형제회는 나로 하여금 웃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내말은, 정말이지요!

신성한 어머니교회와 재속프란치스칸 회에 대하여 제가 좋아하는것중 하나는 다양성 입니다 - 사람들, 의견, 경험, 개성, 회개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노래하는 방법이나 성무일과서를 할때 리본이 책페이지에 적절하게 놓여있지 않거나; 축일이 있을때 어느페이지를 열어야 할지 모를때 이지요. 말할것도 없이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해서 시편등을 시작 할때 어디를 열어 봐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프란 치스칸 이지요. 그것이 우리를 훌륭하고 유일하게 잘 하도록 해 줍니다.

우리는 교회와 재속프란치스칸 회의 믿음을 제외 하고는 결코 서로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각각 우리자신의 재능과 카리스마와 고유의 스타일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자신들의 개성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리더쉽의 방향과 회원을 다스리는 행동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쿠키를 자르듯이 똑같은 프란치스칸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모두는 유머감각이 뛰어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하느님에 의해 놀랍고 유일하게 만들어 졌습니다.

갈등들은 일어날수 있고 그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만약 한방에 10 명이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면, 그중 9 명의 의견은 불필요 하겠지요. 갈등은 불가피 합니다. 파괴적인 갈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건설적인 갈등과 파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당신의 갈등관리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건설적입니까 아니면 파괴적 입니까? 갈등이 생길때 가장 가까운 출구를 찾습니까 아니면 조이고 몰아부친후에 공격합니까? 당신은 새롭고 흥미 진진한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갈등을 무조건 피합니까 아니면 환영 합니까?

나는 당신이 당신의 갈등 관리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권유합니다. 건설적 혹은 파괴적으로 갈등 관리를 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갈등을 다루는 우리의 접근 방식은 대개 우리가 누구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배워온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갈등을 다루는 더 나은 접근 방법을 배울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건설적으로 갈등을 다루는 법을 배울수 있습니다. 갈등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가 참여해서 결정한 것에 달려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보복적인 행동을 하거나, 상대에게 상처주는 말을하거나, 가혹한 언어를 쓴다든가 하여 금을 굻듯이 폭력을 하는것으로 결정합니다.

교황 프란치스는 2017년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에서 “가족이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가 소통하고 서로에 대하여 관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필요불가결한 존재로서 심지어 갈등은 힘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와의 대화, 존경, 다른쪽의 유익에 대한 관심, 자비와 용서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사랑의 기쁨은 세상으로 흘러나와 사회 전체로 빛을 품어 내야 합니다. 형제애와 개인 및 사람들 사이의 평화로운 공존의 윤리는 공포, 폭력 및 폐쇄 정신의 논리에 기반하지 않고 책임감, 존중 및 성실한 대화를 기반으로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줄을 알아차렸나요? 내가 다시 바꾸어 말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정한 형제애는 책임감, 존경심과 성실한 대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차이 중 일부는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숨 안에서 성내거나 불평하지 말고 존경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길때면 잠시 시간을 내어 대화에 성령을 초대하여 존경심과 열린 마음으로 서로간에 진정으로 경청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